공장지대 한복판서 피워낸 포교 원력

김해 불인사, 10월 중 이전불사 회향

8년만에 포교 대표도량으로
교육 · 어린이 포교에도 진력
명상 등 문화포교 활성화도
"포교의 새 역사 쓸 것" 각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열악한 환경에서 지역을 대표하는 포교도량으로 성장한 사찰이 있어 주목된다. 성공적인 포교를 위해서는 사찰 입지와 주변 환경이 포교에 적합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지리적 악조건을 극복해 포교의 꽃을 피운 김해 불인사가 그 주인공. 불인사가 최근 도량 불사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한다.

김해 불인사(주지 송산)는 10월 5일 "도량 이전을 위한 불사를 마무리하고 10월 중 새로운 도량으로 이전한다"고 밝혔다. 도량 이전을 계기로 새 포교의 시대를 열겠다는 각오다.

송산 스님은 "불인사는 소그룹으로 가족이 된 신도들이 하나둘 모여 일군 도량"이라며 "새로운 도량에서 문화포교 및 명상 등으로 모두를 위한 사찰로 성장하고 포교를 위해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의지를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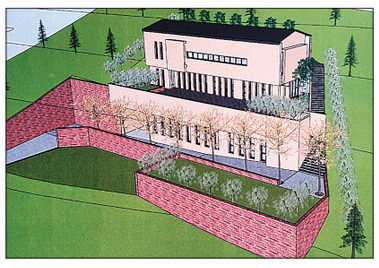
처음 산문을 열었던 8년 전만해도 불인사를 바라보는 지역불교계 시각은 기대보다 우려가 많았다. 불사는커녕 신도조차 모으지 못할 것이란 우려였다. 무엇보다 장소가 문제였다. 불인사는 공장지대 한복판, 사찰이 있을 곳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외진 곳에 위치해 있다. 마음먹고 사찰을 참배하려해도 쉽사리 찾을 수 없는 곳에, 주변은 대부분 판넬로 조립된 공장건물이며 일반 주거지는 전혀 없고 공장지대를 지나면 논과 밭이 펼쳐져 있다.

그러나 8년이 지난 현재 불인사는 정기적으로 신행생활을 하는 신도만 200명이 넘는 사찰로 자리매김했다. 청소년 · 어린이법회에도 40여 명이 등록해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있다. 불인사가 공장건물만 가득한 곳에서 청아한 기도 소리로 불사를 일으킨 이례적 사찰로 주목받는 이유다.


불인사가 도량 불사를 마무리하고 10월 중 이전할 계획이다. 주지 송산 스님은 "새로운 도량에서 새 포교의 시대를 열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례적인 성공 이면에는 주지 송산 스님의 남다른 포교원력이 있었다. 송산 스님은 장소와 상관없이 모두를 위해 열린 도량을 발원했고 누가 찾아오더라도 마주앉아 귀를 기울였다. 그야말로 '무경계'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한 것. 스님의 '무경계' 철학이 모두를 끌어안을 수 있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관세음보살님은 부처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겐 부처님의 몸으로 나투시고 벽지불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벽지불의 몸으로 나타나 법을 설합니다. 비구, 비구니, 우바새, 우바이의 몸으로 제도 할 이에겐 비구, 비구니, 우바새, 우바이의 몸으로 나투시듯 그렇게 노력을 다했습니다"


불인사 이전도량 조감도.

송산 스님의 노력은 서서히 입소문을 탔다. 상담을 요청하며 찾아오는 가족들이 많아졌고 이혼 위기나 가정불화 등 속사정까지 상담하는 신도들도 적지 않았다. 스님은 "아기가 기어 다니지도 못하는데 뛰어라 할 수는 없지 않겠냐"며 "찾아오는 모든 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눈 높에 맞춰 설명하면서 궁극엔 부처님의 법을 가르친다"고 전했다.

오랜 시간이 걸리고 지루한 작업이었지만 스님은 부처님의 정법을 설명하기 위해 기다렸고 가르쳤다. 아울러 공동체 의식과 소속감을 심어주기 위해 소그룹도 구성했다. 현재 불인사에는 20여 개의 소그룹이 운영되고 있는데, 가족단위로 10여 명이 활동하며 사진부, 중창단, 염색반, 청년 선우회까지 다양하다.

송산 스님은 "포교하기에 힘든 장소인 것은 맞지만 이렇게 일궈낸 것도 큰 의미가 있다"며 "새롭게 불사한 도량도 모든 신도들이 십시일반 동참해 가능했다"고 말했다.

새롭게 건립된 불인사는 김해 주촌면 내삼리에 위치한다. 총 2동으로 법당과 명상센터로 나뉜다. 법당은 1층 카페와 갤러리, 종무소가 위치하며 2층은 지대방 3층은 법당이다. 또 다른 한 동은 관(觀)을 의미하는 '봄' 명상센터이다. 총 3층으로 1층은 명상센터 2, 3층은 원룸형 기도방으로 구성된다. 불사 중인 불인사는 대지면적 총 1650㎡(500여 평), 연면적은 1006.5㎡(305여 평) 규모로 현대식 건물이다.

불인사는 도량 불사 회향을 앞두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일체 행사를 생략하고 현재 운영 중인 불교대학, 진심직설, 명상 수업을 시작으로 이전 개소를 알릴 방침이다.

20년 간 이어온 '해인사 1029 천도법회' 회향

'총 7203일' 7차 걸친 천도법회
10월 5일 고불암서 8차 입재

20년 동안 이어온 '해인사 1029 천도법회'가 7차 회향을 맞았다. 해인사 천도법회는 1029일 동안 49재를 21번 봉행하는 해인사 대표 법회 중 하나이다.

해인사(주지 현응)는 9월 28일 대적광전 및 경내 일대에서 '해인사 1029 천도법회'를 회향했다.

법회는 지난 20년의 역사를 담은 영상 상영에 이어 회향사, 감사패 전달, 음성공양, 한글 아미타경 독송 순으로 진행됐다.

해인사 천도법회는 돌아가신 부모와 인연 있는 영가들의 천도를 기원하는 법회이자 대중들을 대상으로 화엄경 입법계품 보현행원을 강조하고 독경, 사경, 불우이웃돕기 등 보살행으로 이끈 법회이다.


해인사는 9월 28일 대적광전 및 경내 일대에서 '해인사 1029 천도법회'를 회향했다.

법회는 현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세민 스님이 해인사 주지였을 당시 원력을 세워 시작했으며 매주 월요일 오전 1천 29일 동안 7차에 걸쳐 진행한 대작불사이다. 일 년 동안 참석한 인원만 총 2만7천 921명으로 집계됐다.

주지 현응 스님은 "해인사 천도법회는 한국불교 초유의 위대한 대장정 법회였다"며 "대한민국이 태평하여 남북 통일과 화합, 번영을 이루고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 질병도 종식되길 바란다"고 기원했다.

해인사 박물관장 원학 스님은 회향법어에서 "천도재는 부처님이 강조하시는 효에 대한 마음과 윤회 사상을 담고 있다"며 "돌아가신 영가를 위해 좋은 세상에서 태어나고 또 다시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 중생을 위해 이익을 끼치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회향이라는 말은 반환점이고 또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며 정진 할 것을 당부했다. 8차 천도법회는 10월 5일 해인사 고불암에서 입재한다.

한편 해인사성보박물관(관장 원학)은 10월 6일~11월 1일 박물관 1층 전시실에서 심천 최종국 초대전 '수묵화 산문에 들다'를 개최한다. 하성미 기자

조계종 교구본사도 녹색사찰운동 동참

고창 선운사, 10월 8일 협약
불교환경연대 17호 연대사찰
본사 중 첫 사례…정착 앞장

조계종 제24교구본사 선운사(주지 경우)가 교구본사로는 처음으로 녹색사찰운동에 동참했다.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법만)와 고창 선운사는 10월 8일 선운사 향운전에서 미래세대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지구를 물려주기 위한 녹색사찰운동 협약식 <사진>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법만 스님과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을 비롯한 선운사 소임자 스님들, 유정길 불교환경연대 운영위원장, 한주영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선운사는 수행과 문화, 복지와 나눔공동체로서 녹색사찰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며 "생명존중 사상을 적극 실천해 교구말사와 불자들도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법만 스님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어려운 가운데 녹색사찰운동에 동참해 준 경우 스님과 대중스님들께 감사드린다"며 "녹색사찰운동이 처음에는 다소 불편하고 어색할 수 있겠지만 환경을 위해 불편함을 즐기며 적극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협약식은 유정길 운영위원장의 녹색불교운동의 의미와 실천방법 설명에 이어 협약서 서명, 녹색사찰 명패 전달, 기념촬영으로 진행됐다.

선운사는 조계종 교구본사 가운데 불교환경연대와 녹색사찰 협약을 맺은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선운사는 이번 협약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비닐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빈그릇 실천운동, 기후행동의 주체로 나서기, 녹색사찰문화가 확산되도록 법회와 교육을 통한 캠페인 진행 등 녹색사찰운동이 효과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통도사 개산 1375주년 문화행사 봉행

10월 25일 개산법요식
비대면 행사 중심으로

영축총림 통도사가 산문을 연 것을 기념하는 개산대재를 봉행한다.

통도사(주지 현문)는 9월 26일~10월 29일 경내에서 '제1375주년 개산대재 · 천년의 문화를 함께 나누다'를 진행한다.

통도사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의 행사를 비대면으로 진행하며 가족 단위로 방문해 체험 및 전시 관람 등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통도사는 우선 경내를 방문한 시민들에게 컬러링 작품과 108 퍼즐, 컬러링북 등을 배부, 전시한다. 아울러 경내 곳곳을 가을 국화로 장식해 화려함을 더하고 도자기 전시 및 '나도 작가다' 전시도 진행한다. 아울러 괘불탱화 특별전과 자장율사 가사 배견도 진행된다.

개산대재의 중요 일정인 법회 의식 및 법요식은 10월 24일~25일에 진행된다. 10월 24일 오전 9시 30분 부도원에서 대웅전 앞마당 괘불대까지 영축삼보 이운행렬이 이어지며 헌공의식이 봉행된다. 오후 1시에는 무풍한송로 송수정 무대에서 영축문화공연이 개최되며, 2시에는 문화학술 세미나가 해장보각에서 마련된다.


통도사는 9월 26일~10월 29일 경내에서 '제1375주년 개산대재 · 천년의 문화를 함께 나누다'를 진행한다. 사진은 지난해 개산대재 현장.

25일은 오전 10시 해장보각에서 영고재로 개산조 자장율사의 창건정신을 되새기며 오전 11시 설법전에서 개산대재 법요식을 봉행한다. 오후 2시에는 역대 고승들의 부도에 헌다하는 시간이 마련된다.

통도사는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축소된 규모와 비대면으로 조용히 진행되지만 방문하는 불자 및 시민들의 휴식과 치유의 장이 되기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다"며 "산사에서 여유를 찾고 잠시나마 평안을 누리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전주교정聯, 9월 25일 교도소에 명절음식 전달

추석명절을 앞두고 참회의 삶을 살고 있는 재소자들에게 온정의 손길이 전해졌다.

전주교도소 교정협의회장 진성 스님(태고종 전북종무원장)과 교정협의회원들은 추석을 앞둔 9월 25일 전주교도소를 방문해 1400명 분의 모시송편과 컵라면을 전달했다.

진성 스님은 "코로나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재소자들의 어려움 또한 가중되고 있어 교정협의회에서 사랑의 송편과 컵라면을 전달하게 됐다"며 "재소자들이 자아반성을 통해 마음을 잘 다스려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병묵 전주교도소장은 "코로나로 인해 재소자들이 8개월간 답답하고 우울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며 "교정위원들께서 추석을 맞아 송편과 컵라면을 보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교정협의회 고문 승천 스님(정읍 일광사 주지)은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도 교정위원들이 고개 숙이고 있는 재소자들에게 활기를 불어넣어주고 있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불교, 원불교, 천주교, 개신교 등 종교활동으로 교정교화활동을 펼치고 있는 전주교도소 교화위원들과 태고종 전북종무원 현진 스님, 행담 스님, 명각 스님, 명현 스님, 마이산 탑사 탑밴드 단원 등이 참석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광주불교 견인할 회관 건립에 정성 답지

광주불교聯, 9월 28일
건립기금 전달식 진행

광주지역 불교계의 숙원사업이자 광주불교의 구심점이 될 광주명상치유센터 건립불사를 위해 지역 불교계의 정성이 속속 답지하고 있다.

광주불교연합회(회장 동현)는 9월 28일 무등산 미륵사에서 진행된 77차 운영위원회에 앞서 '광주전남전통문화명상치유센터(이하 광주명상치유센터)' 건립을 위한 기금 전달식<사진>을 가졌다.

이날 전달식에서 소원정사 금강회(회장 백남송)가 1290만원을, 한마음선원 광주지원(지원장 혜월)이 1108만원을, 광주 서구청 불자회(회장 손회숙)가 1290만원을 기탁했다.

광주명상치유센터는 광주불교회관 역할을 할 광주지역 불교계의 연합공간으로, 미래 광주와 호남불교의 중흥을 위해 지역 불교인재의 양성, 불교단체의 활성화, 사찰 교육문화의 체계화를 지원하는 공간으로 조성된다.

광주불교연합회는 광주명상치유센터 건립을 위해 1000일 기도와 발대식 등을 준비했으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공식적인 출범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왼쪽부터 소원정사 금강회 회장 백남송 회장과 동현 스님, 불교회관기획단장 도계 스님.

이날 전달식에서 한마음선원 광주지원장 혜월 스님은 "다들 어려운 여건이지만 광주불교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는 사명감이 있는 만큼 건립불사의 원만회향을 발원한다"고 당부했다.

백남송 소원정사 금강회장은 "오늘 전달한 기금은 더운 여름날 25명의 회원들이 매주 화, 목요일 저녁에 모여 100일간의 기도 정진을 하면서 모은 것"이라며 "회원들이 매일 기도하고 1만원씩 보시한 정성이 모인만큼 불사에 잘 쓰여지길 서원한다"고 말했다.

지난 6월 재창립한 서구청 불자회는 이날 전달식에서 회원 12명이 1290만원을 기부하기로 약정했다.

한편 광주불교연합회는 10월 5일~11일 '제2회 광주불교문화사진전시회'를 개최했다. 광주전남지사 양행선

창원시불교聯, 산해원문화상 후보 모집

지역 예술인과 언론인들의 공로를 치하하기 위해 제정된 산해원문화상 후보자를 모집한다.

창원시불교연합회(회장 월도)는 10월 31일까지 제30회 (향기로운)산해원문화상 후보 추천을 받는다. 시상 부문은 문학상, 예술상, 언론상, 행원상(지역개발)이며, 후보 자격은 경남 도내에 거주하고 해당 분야 20년 이상의 전문 활동경력을 가진 문화예술인, 언론인, 사회봉사자이다. 당해 연도의 활동이 높은 사람을 우선 선정하며 종교와는 무관하게 심사한다. 신청은 메일로 가능하다.

수상자에게는 창작지원금 500만 원과 상패가 수여된다. 시상식은 12월 7일 오후 6시30분 그랜드 머큐어 앰배서드 창원에서 열린다. 055)222-1393

성낙두 경남지사장